“한국 지방관광 오세요.” 강원도 등 7개 지자체가 일본 관광객들을 겨냥해 한국 지방관광 세일즈에 나섰다. 1 18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코리아 트래블 페스타’에서 한국 지방관광의 매력을 소개하는 오지호(가운데)와 한국관광 명예홍보대사 후에키 유코(오른쪽). 2 오사카에서 성황리에 열린 코리아 트래블 페스타’. 3 이종훈 한국관광공사 오사카 지사장과 최문순 강원도지사, 오다 마사유키 일본 H.I.S. 간사이영업본부장(왼쪽부터)이 일본 돗토리와 강원도를 잇는 여행상품 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오사카 | 김재범 기자

日스타 유민 “인천으로 짜장면 먹으러 오세요”

〈후에키 유코〉

코리아 지자체 위크 인 재팬 개최

관광공사·지자체, 일본서 지방관광 홍보
지방관광 확산·일본 방한시장 회복 기대
최문순 강원도지사, 여행상품 개발 MOU

일본 오사카 나카노지마의 대형 이벤트홀 ‘도지마 리버 포럼’. 행사장을 가득 메운 1000여명의 일본인들이 무대를 주목하고 있다. 무대 위의 사람은 ‘직장의 신’ 등의 드라마로 인기 높은 한류스타 오지호와 ‘유민’이란 이름으로 친숙한 한국관광 명예홍보대사 후에키 유코. 둘은 자신들이 경험한 한국의 관광명소를 소개했다. 오지호는 멋진 풍광과 아웃도어 액티비티가 매력인 강원도를 권했고, 후에키 유코는 “이국적인 차이나타운이 있고 한국의 대표 음식 짜장면을 맛볼 수 있다”며 인천을 추천했다.

한일 두 스타가 한국 지방관광의 매력을 소개한 이 행사는 18일 한국관광공사(이하 관광공사)와 강원도, 부산, 대구, 인천, 제주, 경북, 충남 등 7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일본 간사이 지역 여행소비자를 대상으로 마련한 관광설명회 ‘코리아 트래블 페스타’다. 관광공사와 7개 지자체는 16일부터 20일까지 요코하마,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등 일본 4개 도시를 돌며 ‘2015 KOREA 지자체 위크 in Japan’을 개최했다. 도시별로 현지 여행업계와의 1대1 상담회와 설명회, 그리고 ’코리아 트래블 페스타‘ 같은 소비자 행사를 열었다.

지자체가 이처럼 대규모 관광마케팅 로드쇼를 연 것은 수도권에 편중된 인바운드(한국에 입국하는 해외방문객) 관광 수요를 지방으로 확산하고, 장기 침체에 빠진 일본 방한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이번 로드쇼에서는 지자체별로 지역 특색을 살린 관광콘텐츠를 현지 여행업 관계자와 소비자에게 홍보했다.

부산광역시는 영화 ‘국제시장’을 테마로 ‘국제시장에서 만나요’라는 일본 관광객 프로모션을 내놓았고, 충청남도는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유력한 백제역사유적지구를 내세웠다. 강원도는 최문순 지사와 공연단까지 참여한 34명의 대규모 방문단을 구성해 참가하는 열의를 보였다.

한편 ‘코리아 트래블 페스타’ 전날에는 오사카 테고쿠 호텔에서 JTB 등 80여개 여행업체와 마이니치신문 등 언론이 참여한 가운데 여행업계 설명회와 1대1 비지니스 상담이 열렸다. 또한 이날 강원도와 H.I.S 간사이지역본부, 한국관광공사 오사카 지사 간에 돗토리와 강원도를 잇는 페리크루즈 등의 여행상품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식도 가졌다. 오사카(일본) | 김재범 전문기자 oldfield@donga.com

10~20대 ‘등 통증’ 환자 증가…장시간 스마트폰 사용 원인

“엄마, 나 왜 이렇게 등이 뻐근하고 아파?”

최근 등 통증을 호소하는 10~20대 젊은이들이 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등 통증 환자들의 진료비용이 연평균 6.4% 늘었다. 40~70대 여성 환자들이 많지만 최근에 청소년들과 20대 젊은층의 환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등 통증은 등 쪽 부위에 발생하는 통증으로 목과 팔 그리고 옆구리 통증을 포함해 흉추, 허리 및 다리 통증을 포함한다. 근육 이상으로 등통증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척추질환이나 목관절 이상 신호일 수 있다.

척추관절 동탄시티병원 김태연 원장은 “보통 척추, 관절 질환은 뼈의 퇴행이 시작되는 중장년층에서 많이 발생할 수 있다”며 “하지만 목디스크, 거북목증후군 등의 목관절 질환은 잘못된 자세가 주원인이기 때문에 젊은층에도 발생하기 쉬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등 통증은 잘못된 자세 습관이나 장시간 스마트폰 사용이 주 원인으로 꼽힌다. 잘못된 자세로 앉는 습관이나 컴퓨터, 스마트폰을 장시간 사용할 경우 등이 굽으면서 머리도 앞으로 내미는 자세를 취하게 된다. 이는 목과 어깨, 등의 근육과 뼈를 경직시켜 통증을 발생시킬 수 있다. 등 통증, 목의 뻣뻣함을 단순히 근육통이라고 지나칠 수 있으나 같은 증상이 누적될 경우 목디스크와 같이 더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한다.

또한 등 통증은 목관절 질환뿐 아니라 척추질환, 체형의 구조적 문제 등 여러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또 더 큰 질환으로 악화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자세를 바르게 해 신체의 균형을 잡고, 틈틈이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또 엎드려 자는 자세나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팔로 목을 세워 TV를 보는 자세, 베개를 지나치게 높게 베는 경우를 피하는 것이 좋다. 연제호 기자 sol@donga.com

■ 봄철 피부관리 ‘비포 & 애프터 케어’

꽃놀이 전 ‘수분 보호막’ 귀가 후엔 ‘저자극 케어’

꽃의 계절이다. 전국은 봄꽃축제 인파로 ‘꽃 반, 사람 반’이다. 꽃놀이는 눈은 호강하지만 햇볕 탓에 피부는 찡그리고 있다. 피부 관리에도 신경을 써주자. 꽃보다 화사한 피부를 유지하기 위한 봄꽃축제 비포 & 애프터 케어를 알아보자.

●BEFORE…수분 보호막으로 철벽 수비

자외선이 내리쬐는 햇볕은 피부의 적이다. 꽃가루와 먼지가 많은 봄꽃축제에 나서려면 피부 기초체력을 단단히 챙겨야 한다. 수분 크림으로 피부에 수분을 가득 채우는 것은 기본. 수분 보호막을 만들어 수분이 쉽게 증발하지 않도록 유지하는 이중 보습이 포인트다.

참존 플레지엄 워터풀 하이드레이팅 크림(사진)은 뉴질랜드 마누카 꿀과 로얄젤리, 프로폴리스 그리고 참존만의 특허성분인 엘-프로세라로 피부 결마다 풍부한 수분을 공급해주는 동시에 수분 홀딩 시스템으로 피부 장벽을 강화하는 이중 보습 작용으로 오랜 시간 촉촉함을 유지시켜 준다.

●AFTER…꽉 막힌 모공, 들뜬 각질, 홈 케어로 ‘말끔’

꽃놀이에서 돌아온 당신의 피부에는 피지와 각질, 그리고 먼지와 꽃가루들이 잔뜩 뭉쳐 있는 상태다. 꼼꼼한 클렌징은 필수 중에 필수. 이후 추가적으로 모공과 각질을 케어해 줄 스페셜 케어 또한 필요하다. 하지만 자극적인 케어는 절대 금물이다. 외부 활동으로 자극 받은 피부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피부 각질을 부드럽게 녹여내고 모공 속 노폐물을 말끔히 없애주는 것이 좋다.

참존 콘트롤크림 셀프 마사지(사진)는 마사지+유수분 밸런싱+저자극 각질 제거+모공 클렌징의 4가지 효과를 한번에 가질 수 있는 똑똑한 홈케어 아이템. 모링가씨앗 추출물, 브로콜리 추출물 등의 식물성분으로 피부를 바탕부터 건강하게 가꿔준다. 연제호 기자

바이탈 뷰티 ‘슬리머’ 장 밸런스 기능 UP

아모레퍼시픽의 뷰티푸드 브랜드 ‘바이탈 뷰티’는 슬리밍 앰플 ‘슬리머’의 장 밸런스 기능을 강화했다. 장내 유익균을 생성하고 유해균을 배출하도록 후발효녹차, 황금발효추출물 등을 부원료로 함유했다. 또 용량을 기존 20mL에서 25mL로 늘렸다.

헤라 ‘셀-바이오 크림 소프트’ 출시

헤라는 ‘셀-바이오 크림 소프트’를 출시한다. 헤라가 독자 개발한 셀-바이오 옴니포커스 성분은 피부 문제 핵심에 연쇄 반응을 일으킨다. 피부톤, 피부결, 밀도, 탄력, 윤기 등 7가지 피부 개선 효과를 느낄 수 있다.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